



스페인의 라모스(왼쪽)가 28일 우크라이나 돈바스 아레나에서 열린 포르투갈과의 유로2012 4강전 승부차기에서 상대 골키퍼 루이 파트리시오를 따돌리고 골을 성공시키고 있다.

호날두의 '메시 콤플렉스'

호날두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얼굴에 아쉬움이 가득 묻어났다. 다음이 내 차례인데- 페널티킥은 자신 있는데- 차보지도 못하고 저버리다니-

호날두에 이번 유로 2012는 포르투갈 우승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었다. 바로 메시의 그늘, 2인자 콤플렉스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이번 대회 포르투갈을 상대하는 팀 관중석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이름은 메시.

아르헨티나에서 임신한 여자친구와 함께 쉬고 있는 메시의 이름은 왜 부르는 걸까? 이유는 바로 호날두 때문이다. 호날두는 메시 이름만 들어도 신경질적이다. 호날두가 찬스를 놓치거나 경기가 잘 안 풀릴 때 관중들은 신나게 "메시"를 연호하며 호날두를 마음껏 조롱한다.

호날두 또한 자신이 잘못할 때면 항상 메시를 끌어들이는. 덴마크전에서 무득점에 그치며 흑역사에 시달릴 때도 "메시에게도 안타깝게 있기 마련이다. 모든 이를 기쁘게 할 수는 없다"고 말할 정도다. 또한 "작년에 메시는 코파 아메리카에서 탈락했



28일(한국시각) 열린 유로 2012 준결승 스페인-포르투갈 4강전에서 포르투갈의 호날두가 승부차기 끝에 아쉽게 패하자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난 이렇게 잘 하는데 언제나 2인자일 뿐..."

나의 불행은 모두 메시 너 때문이야"

그것은 참피날 일"이라며 느닷없이 메시를 공격하기도 했다.

메시도 호날두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피가 졸졸 흘러내렸다. 호날두는 경기가 끝난 직후 관중석으로 그 팬을 찾아가 그날 뛰었던 유니폼 티셔츠를 벗어주며 함께 기념 촬영을 해뭉클함을 선사하기도 했다.

호날두는 이번 유로 2012를 단단히 버티고 있었다. 올해는 레알이 바르사를 꺾고 라리가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다. 알바스의 슈팅이 크로스바를 때리면서 호날두의 꿈까지 골문 밖으로 날아가 버렸다. 호날두는 결국 결승을 눈앞에 두고 슬슬히 퇴장하고 말았다. 다음의 말을 남기고 "승부차기는 복권과 같은 것. 최선을 다했으니 후회는 없다. 하지만 슬프다."

그러나 팬에 대한 매너 만큼은 훌륭했다.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지난 3년 연속 메시에게 빼앗겼던 발롱도르(FIFA 선정 올해의 선수)를 되찾아 올 수도 있다. 2인자 콤플렉스를 떨쳐낼 수 있는 더 없이 좋은 기회였다.

그러나 팬에 대한 매너 만큼은 훌륭했다.

그러나 팬에 대한 매너 만큼은 훌륭했다.

파넨카킥이 또 승리 불렀다

스페인, 라모스의 환상 침슌으로 포르투갈 꺾고 결승 진출

승부차기서 4-2

파넨카킥이 또다시 승리를 불렀다. 28일(한국 시각) 우크라이나 돈바스아레나에서 열린 유로 2012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4강전에서 양 팀은 연장전까지 120분의 혈투를 벌이고도 승부를 가리지 못해 승부차기에 들어갔다.

11m 퐁퐁. 심장 싸움인 승부차기의 주인공은 스페인 라모스였다. 첫 번째 키커 알론소와 무티뉴의 슈팅이 모두 골키퍼에 막히고 2번 이니에스타와 페레, 3번 로케와 나니 모두 성공시켜 스코어는 2-2. 스페인의 4번

키커 라모스는 쓰러지는 파트리시오 골키퍼를 보며 골문 가운데로 유유히 날아가는 파넨카킥을 성공시켰다. 라모스의 감성장에 부담을 느꼈을까? 포르투갈 4번 알바스의 슈팅은 크로스바를 맞고 튀어나왔다. 8강전에서 이탈리아 피롤로의 파넨카킥 이후 잉글랜드 에슬리 풀이 크로스바를 맞힌 것과 똑같은 상황이 연출됐다. 스페인은 승리의 종결자 파브레가스가 4번째 골을 성공시켜 4-2로 이겼다. 결승에 진출한 스페인은 이제 사상 첫 메이저대회 3연패에 단 1승만 남겨놓게 되었다.

라모스에게 이번 파넨카킥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지난 4월 월드컵 4강전 덴마크와의 경기에서 승부차기를 실축,

레알 마드리드 패배의 주범으로 몰렸던 아픈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라모스는 경기 후 "골키퍼의 마지막 움직임을 예상할 수 있었다. 한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미리 느껴 파넨카킥을 시도했고 그 뒤는 운에 맡겼다. 미쳤던 것 같다"며 기뻐했다.

일명 '라모스의 난'으로 알려진 최악의 경기장 폭행 사건이 있었다. 2010 남아공 월드컵에서 우승컵을 함께 들어올린 레알 마드리드(이하 레알)와 바르셀로나(이하 바르사) 선수들은 모처럼 화해 무드였다. 그런데 엘 클라시코 дер비에서 레알이 0-5로 뒤지자 라모스가 이성을 잃었다.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는 메시의 허벅지를 고의로 걷어 차 넘어트렸다. 스페

인 대표팀에서 함께 센터백을 맡고 있는 바르사 주장 푸욜이 항의 하러 오자 얼굴에 손찌검까지 해버렸다. 메시에 이어 주장까지 폭행 당하자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태. 양팀 선수들이 서로 욕설하며 뒤엉켰고 주심의 레드카드를 받은 라모스는 사비의 얼굴까지 밀어버리며 유유히 밖으로 걸어 나갔다. 대표팀 자격까지 논란이 되었던 라모스는 이 파넨카킥 한 방향으로 스페인 국민들에게 남긴 부정적 이미지를 한꺼번에 씻어냈다.

감심장이 있었다면 '저미션'도 있었다. 개인 통산 A매치 100승을 노리던 골키퍼 카시야스는 알론소의 실축으로 골을 내주면 골짜기 분위기가 뜨거워진 포르투갈 무티뉴의 슈팅을 몸을

▲파넨카킥=축구 역사상 가장 경악스런 PK골로 유로 1976 결승에서 체코의 파넨카가 성공한 킥이다. 강하게 구석으로 차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예측하고 넘어지는 골키퍼 뒤, 즉 골문 한 가운데를 향해 발 끝으로 푹 찍어서 차는 '침슌'. 골키퍼를 농락하는 킥인데 이 킥을 성공시키면 승부차기에서 승리할 확률이 높다고 한다.

날려 막아내 분위기를 되돌려 놓았고 스페인은 이로 인해 승리할 수 있었다.

스페인인 내달 2일 새벽 독일-이탈리아 승자와 무릎을 두고 최종 승부를 벌인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네그레도 원톱 카드를 들고 나와 포르투갈에 고전한 스페인 델 보스케 감독이 결승전에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지 궁금하다.

/유재권기자 jkyou@kwangju.co.kr

풍운아 최향남 KIA '마무리'

'풍운아' 최향남(사진)에게서 생존 방법을 배운다.

KIA 타이거즈의 선동열 감독은 지난 23일 한기주가 손가락 염증으로 엔트리에서 제외되자 돌아온 만형 최향남에게 마무리 자리를 맡겼다. 파격적인 배치였다.

지난 시즌 팔꿈치 부상으로 롯데에서 방출됐던 최향남의 친정 복귀가 가시화된 것은 불과 한달 전.

5월21일 선 감독이 보는 앞에서 테스트를 받은 최향남은 6월5일 정식으로 계약을 하고 다시 타이거즈맨이 됐다.

1990년 해태에서 프로생활을 시작한 뒤 LG이적, 재입단, 해외 진출 도전, 롯데 입단 등 우여곡절 끝에 맺은 타이거즈와의 4번째 인연이었다.

최향남의 불펜 피칭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다. 그래서 현장 프런트도 최향남의 성공에 대해 반신반의했다.

하지만 두 번째 피칭에서 최향남은 다른 공을 던졌다. 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최향남은 6월6일 2군 등판을 시작한 뒤 3경기에서 7이닝을 소화했다.

선 감독은 "직접 보겠다"며 예정보

다 훨씬 빠른 지난 17일 최향남을 1군으로 호출했다. 그리고 등판과 함께 마운드에 올려보냈다.

6-0으로 앞선 9회 최향남은 LG 박용택·정성훈에게 연속 안타를 맞으며 무사 1·2루의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좌익수 플라이와 상대의 주루사로 인해 실점 없이 경기를 마무리했다.

이후 삼성, SK와의 경기를 치른 최향남은 마무리라는 정식 임무를 부여받았다. 140km에도 미치지 못하는 직구를 가진 41세의 소방수가 됐다.

LG와의 원정 경기가 열린 27일 최



향남은 6-4로 앞선 9회 출격에 나섰다. 박용택의 2루타로 무사 2루, KIA 4연승에 마지막 위기가 찾아왔다.

최향남은 김일경과 이병규를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운 뒤 대타 최영진을 만났다. 헛스윙 이후 연속 볼, 선 감독이 직접 마운드에 올라 자신있는 승부를 강조했다. 이후 최향남은 1루수 라인드라이브로 경기의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잡아내며 세이브를 쟁했다.

1385일만의 세이브로 최향남은 송진우에 이어 역대 두 번째 최고령 세이

브의 주인공이 됐다. 41세 2개월 30일. 최향남은 첫 1군 등판에서 직구만 던졌다. 밸런스를 잡기 위한 과정으로 화려한 변화구가 아닌 직구 위주의 정면 승부를 펼치고 있다. 단순한 패턴이지만 공 끝에 힘이 있다. 또 빠른 템포로 타자들을 공략하고 있다.

도전을 멈추지 않았던 최향남은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마운드에 대한 열정과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다.

얼마 전 조규제 코치는 "어린 투수들이 왜 최향남이 아직도 마운드에서 공을 던지고 있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는 말을 했다.

어려진 KIA 마운드가 최향남에게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까?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Geumsoo Hotel Ariyang House. Features images of a dining table with many dishes, hotel rooms, and a conference room. Text includes '역시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입니다!', '건강한 우리 음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and contact information: 금수장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2111.